

師 弟 論

全 光 鏞

(서울大 名譽教授)

國文學界의 泰斗로 한평생을 敎壇에서 後進 양성에 바친 陶南 趙潤濟 선생은 일찌기 ‘師弟의 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述懐한 바 있다.

“옛말에 師父一體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스승과 아버지는 그 情으로 보나 誼로 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인데, 사실 父子간은 그 血肉이 전수되고, 師弟간은 그 道가 전수되는 것이니, 肉體와 精神은 사람을 이루는 兩大要素로 정신 없는 육체가 존재할 수 없고 육체 없는 정신이 존재할 수 없으니, 스승과 아버지는 똑같다는 것보다 그 輕重을 다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父子는 天倫이라 그 情이 자연에서 우러나와 무의식중 그 관계가 깊고, 師弟는 道를 통해서만이 그 誼가 생기는 것이니 의식중에 그 관계가 깊어, 양자를 구별한다면 父子는 情이 무겁고 師弟는 誼가 무겁다고 할 수도 있겠거니와, 情과 誼는 그 출발점은 다를지언정 그 귀착점은 다 같다 하여야 될 것이다. …… 그러나 이것은 다 옛날 觀念이요, 옛날 이야기다. …… 오늘의 敎育은 學校라는 공중기관에서 돈을 받고 가르침을 職業으로 하는 敎員과, 돈을 내고 배움을 직업으로 하는 學生간의 去來이니, 가르치는 사람이라 하여 스승될 리가 없고, 배우는 사람이라 하여 弟子될 리가 없다. 그것은 그

저 知識이라는 불건을 중간에 두고 서로 배배하는 평범한 主客의 관계와도 같을 따름이다. …… 世上의 敎育者여, “나는 누구의 先生이다” “누구는 나의 弟子다”하는 自己本位의 말을 함부로 하기를 삼가라. …… 그러나 오늘의 去來敎育界에 있어서도 굳이 師弟의 誼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직 彼此의 利害關係에서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학기에 大學에서 停年退任을 한 李君喆 교수는 근자에 발표한 ‘君·師·父’라는 題下의 글에서 그 心境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자고로 유교사회에서는 君·師·父 일체가 가장 으뜸가는 행동지침으로 되어 있었다. 짐작컨대 그 뜻은 임금을 섬기는 것이나, 스승을 모시는 것이나, 부모를 모시는 근본 마음씨는 똑같아야 함을 가르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던 것이 근자에 와서는 ‘君·師·父’가 함께 몰락을 당했다. 어느 하나도 과거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것이 없다. 귀를 기울여 보라. 까닭인즉, ‘君’이란 현대식 해석을 한다면 통치자를 뜻하는 것인데, 이는 백성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공복이요, 스승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용된 직업인이므로, 학생

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고들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효도 또한 그렇다. 사람이란 내리사랑을 하기 마련인데 이는 순리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진리에는 양면성이 있는 법이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에는 소중한 공동의 속성이 있다. 이들은 그 대상이 자신보다 낮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즉 임금은 신하가 자신보다 뛰어나길 바라고(물론 어진 임금의 경우이다), 스승은 제자가 ‘靑於藍’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긴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말해 무엇하랴. 물론 선배도 후배가 잘 되길 바라지만 자기보다 앞서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해서 우선 자기가 더 잘 되고 연후에 동생 차례다. …… 무릇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상대를 앞세우는 것은 ‘군·사·부’의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역시 ‘군·사·부’는 일체이다.”

陶南선생은 오늘날의 교육 제도나, 이해 관계에 치우친 현실적인 인정의 각박한 면모에 비추어, 師弟간의 의리나 정의가 沒却되어 감을 개탄하고 先生이나 弟子라는 用語의 성립조차 불가함을 指彈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李교수는 ‘君·師·父’의 영광이나 啓導力이 그 권위와 함께 몰락되어 감을 지적하면서도 아직도 그 질서, 아낌, 사랑의 當爲性과 效率性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 포기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大學은 學問의 殿堂이나 眞理를 探究하는 象牙塔으로 高踏의인 呼稱을 지니 왔고, 또 그러한 理想이나 羨望이나 自矜은 大學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의 일면이기도 했다.

그러나 大學의 주변 與件이 극도로 實用的이요 功利的인 경향으로 치달음에 따라 大學의 指向하는 방향이나 修學의 방법도 변모되어 갈 수밖에 없었고, 특히 教育外的 여건의 거센 물결은 大學의 正統의인 自律性을 제한하거나 歪曲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러한 대학 進路의 불가피한 수정을 강요하게 한 要因의 하나가 바로 정치적 현실에 근거한 대학생의 사회참여의식이 행동화된 ‘테모’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반된 것이 教授의 學生指導의 어려움이나 負擔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大學은 학생의 인격을 도야하고 學問을 닦는 곳임에는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 학문은 원리적인 지식을 축적하거나, 실용적인 기량을 습득하거나 모두가 순수한 수련의 과정 그것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외부로부터의 회오리바람이 불어들어서 말미암아 大學의 캠퍼스는 그 機能마저 마비된 채 큰 混亂을 겪곤 한다.

원래 대학에 있어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學德의 연마에 대한 지도이던 족했고, 그것은 또한 필수적인 것이요, 본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테모를 막는 개별지도는 애초부터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면이 적지 않았다. 또 학생 테모가 있을 때마다 이를 鎮撫하는 대책이 무엇인가도 모르거나 대처할 능력이 없으면서 덮어 놓고 “무사히 졸업해야 하지 않느냐”는 뼈대없는 말로 실유하려 든다는 것은 너무도 疎漏하고 무력한 처방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나 자신이 체험한 경우 하나를 간추려 보려 한다.

근 십년 전, 내가 개별지도로 맡은 우리 學科의 여러 학생 중에 S라는 학생이 있었다. 외형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온순하고 공부에도 열중하여 1,2학년 때는 학업성적도 우수한 편이었다. 그리고 당시 학생들 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한 ‘탈출’에도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생이 3학년 때부터 학생소요에 주동인 물로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학교당국의 요청도 있어 부득이 홍제동 시장 속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 갔다. 소란중 며칠 동안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학생은 다행히도 집에 있었고, 가난이 극에 달해 있다면 그의 집은 조그만 집방이기는 하나 잡화상으로 생계는 유지해 갈 정도로 보였고, 그의 아버지는 전직 국민학교 교사 경력을 가진 지식층이기도 했다. 부모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며, 가

정에서의 지도를 당부했고, 본인에게도 그의 부모 앞에서 잔뜩 설득하여, 기어코 졸업은 해야 자신의 전정은 물론, 부모에 대한 도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도 했다. 결국 본인은 아주 진정 어린 표정으로 수긍하였고 나를 전승하는 모습도 밝게 보였다. 나는 적이 안도의 기분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 후 그의 데모 참여는 끊이지 않았고 내 앞에서는 맹서를 하면서도 행동은 별개의 것이었다. 그 무렵 대학측에서 이른바 문제학생을 격리하는 방법으로 1개월 동안 동해안을 여행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여비의 출처를 케어 묻는 식으로 나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진심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던지, 결국 동해안 여행을 치르고, 조그만 선물까지 마련하여 가지고 왔었다. 나는 그러한 지도방법에 대한 꺼림직함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가 순탄히 졸업하기만을 빌 따름이었다.

그러나 새학기에 접어들자 그는 다시 데모의 선봉에 나섰다, 나는 그 때마다 그의 집을 찾아 아버지와 여러 가지 방도를 숙의하였다. 그러나 그 아버지마저 마지막에는 나를 꼭 경찰서에서 온 형사 취급하는 듯한 말씨로 나왔다. 나는 그 아버지에게大聲一喝하고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S군은 그해 11월 하순 졸업시험도 거의 칠 무렵, 다시 데모에 주동이 되어 체적되고 말았다. 나는 정이 싹 가신 심정 그대로였다. 그 후 몇 해의 세월이 흘렀고, 그간의 그의 사정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돌연한 정부의 시책으로 데모 제적학생의 전면복교가 발표되었다.

그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나는 듣기만 하고 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S군은 복학 후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데모의 주동자가 되었으므로, 가중처벌로 다시 제적되었다. 이것으로 그와 나와 관계는 완전 종식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난 해, 8월 하순 다시 한번 데모 제적학생의 복학조치로 S군은 또 한번 재입학되었고, 그 사이 십년의 세월이 흘러 나는 그의 지도교수가 또 다시 될 수 없이, 8월 말일자로 정년퇴직이 되었고, 이로써 그와의 연분은 완전 해소된 상태에 놓여졌다.

국민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나라,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집안,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받지 않고 스승이 그 제자에 대한 진정어린 인도에 소루한 학원, 이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불우한 결과를 自招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마음 내키지 않는 학생개인지도, 이것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그 효과는 과연 어떨지, 물론 안 하기보다는 낫다는 自慰策은 될지 모르지만, 딱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학의 自律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大學이나 教授의 自律的 재량권은 제한된 채로 지도에만 자율을 요구한다면 그 跛行性은 어떻게 멎질해줄 수 있을 것인지…….

정치성을 띤 악순환이 없는 순수한 면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군·사·부’의 전통론까지 접근하지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좀더 信義와 情誼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